

# 尹, 징계 반발 소송 예고... 추-윤 갈등 당분간 계속될 듯

### 법무부-검찰 갈등 다음 국면으로 與, 공수처출범 등 개혁 마무리 속도 연초 법무장관 교체 시나리오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정을 거쳐 재가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징계결정 재가를 기점으로 추미

에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 위 결정 및 대통령 재가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16일 오후 추 장관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제정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당초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해석했지만 청와대는 그 같은 해석에도 선을 그어왔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만큼 이번 갈등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게 되면 그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을 '명예로운 퇴로'로 삼아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지지를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카드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봉합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작동할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당장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세우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제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에 법무 "검찰개혁 완수"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결정 존중" ... 野 "비상식적"

### 여야 '윤석열 징계'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의 보복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또는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만약 윤 총장 관련 사건, 제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 조사를 거론했던 민주당은 징계위가 해당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당 관계자는 "일단 판사 사찰 부분은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라며 "국정조사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민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공권력이라는 말을 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며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 감을 이미 물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尹 정직 2개월' 속뜻은 면밀한 수계산"

### 법조계, 역풍 차단·소송 대비 분석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마라톤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면밀한 계산으로 수위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면서 향후 윤 총장 측이 제기할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징계위는 장장 17시간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정권에 미칠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찰 및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지적돼 여론이 좋지 않고, 법무부 검찰위원회와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윤 총장을 감압적으로 물러나게 할 경우 오히려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법적 문제 제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라며 "설마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인용하겠느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형석, 영세 소기업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포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16일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소기업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기업들의 물적 피해액은 3785억여원으로,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000여만원 보다

7.5배나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 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를 입으면 정상적인 경영 복구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은 물론 소기업까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소병철, 환경미화원 사고 근절 대책 마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은 16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려 재계정을 통

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 없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실버 (24) 방1	2,850	1,680
	덕산 스피러스	골드 (28) 방2	3,210	1,980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로얄 (34) 방3	4,890	3,480
퀵스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 (21) 방1	1,980	980
		스위트A (26) 방2	2,120	1,280
		스위트B (31) 방2	2,600	1,380
	로얄 (35) 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